

文獻說話 所在 반동인물의 史的 研究

김 수 봉*

목 차

I. 머리말	III. 반동인물의 史的 變異와 그 意味
II. 반동인물의 時代別 特徵	1. 婚姻條件의 個別性과 愛情的 說話
1. 高麗時代 以前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2. 家族制度의 特殊性과 家庭的 說話
2. 朝鮮前期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IV. 마무리
3. 朝鮮後期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I. 머리말

口碑文學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학이기에, 생활 및 意識共同體로서의 민족이 지닌 문학을 사실상 대변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口碑文學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민중이나 민족이 지닌 의식이나 時代相을 짐작할 수 있다.

설화도 口碑文學의 한 분야이고 집단적 공동 關心事를 그 내용으로 하며 외형적 상태나 등장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된다²⁾는 점에서 등장인물들의 의식이나 행위 등의 특징을 통해서 당시의 공동 關心事나 공통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들의 변모를 통해서 공동 關心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1, 8쪽.

2) 이헌홍, 고소설의 기점 설정문제 재론, 『국문학의 史的照明』, 계명문화사, 1994, 140쪽 참조.

事나 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작품 속의 주동인물은 당시의 민중이 추구하던 이상적 인물상이라면, 반동인물은 대체로 당시에 흔하면서도 문제시되던 問題的 인물 즉 관심의 대상이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關心事나 문제적 현실은 이상적 인물인 주동인물보다는 문제적 인물인 반동인물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반동인물의 史的 變異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나 민중의식의 變貌를 더욱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文獻說話³⁾의 반동인물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 특징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했는가 등을 통하여 반동인물의 시대별 특징과 시대별 變異樣相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동인물의 특징은 고려시대 이전과 조선전·후기의 3단계로 나누어 시대별로 파악하고, 시대별 변이양상이 갖는 의미는 문학사회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시대별 동이점과 사회적 배경과의 相關關係 속에서 파악하기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설화의 많은 영역 중 가정내적인 문제 즉, 가정내적 구성원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적 설화와 남녀간의 愛情問題 즉, 남녀의 애정이나 결혼 문제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나 남녀 상호간의 갈등을 다룬 애정적 설화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⁴⁾

연구의 범위는 반동인물의 여러 특징 중 반동인물의 存在樣相과 반동인물의 作品內的 기능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
- 3) 문헌설화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설화를 연구하려면 채록본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오랜 세월 전의 설화는 문헌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그 이유는, 가정은 인간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최소 집단이며, 애정은 가정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을 이루는 요소이기에 이들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 다른 모든 사회 현상이나 문제의 친원지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나 사회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화의 다른 모든 영역에 우선하여 가정적인 문제를 다룬 설화와 애정적인 문제를 다룬 설화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II. 반동인물의 時代別 特徵

설화 속의 반동인물이 갖는 특징 파악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즉 설화는 사건 중심이자 인물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은 등장인물이 단순히 다른 이야기의 삽화로 끼어든 경우도 있고⁵⁾ 그렇지 않다고 해도 등장인물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해결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작품도 있어서⁶⁾ 등장인물간의 갈등이 별로 부각되지 못한 작품도 있으며, 또 등장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조차도 단일한 사건에 철저히 주인공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반동인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작품도 있다.⁷⁾ 뿐만 아니라 설화는 표현 방법이 보고중심 서술이자, 결과중심 서술이므로 반동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조차도 반동인물의 세부적 행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은 드물다.⁸⁾

그 결과 설화 속에서는 반동인물의 반동행위 과정이나 그 행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의 자질 중에서도 그 성격이나 외모, 재능 등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것조차도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이끌어 낼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작품 내용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반동인물의 종류, 반동인물의 목적, 반동행위의 결과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반동화의 계기와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만을 추출하여 반동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고려시대 以前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高麗時代까지의 문헌 중 본고의 對象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은 삼국

-
- 5) 이러한 성격의 작품은 <왕손명>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 6) 이러한 성격의 작품은 <합옥환봉처득옥>, <검안시필부해원>, <조현명>, <설신원완산유검옥> 등의 작품이 있다.
 - 7) 이러한 성격의 작품은 <획동보혜부택부>, <가절마전화매영>, <심회수>, <노신>, 등의 작품이 있다.
 - 8) 서대석, 설화와 고소설의 비교연구 서설,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1974.) 와 김일렬, 설화의 소설화,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참조.

사기⁹⁾, 삼국유사¹⁰⁾, 파한집¹¹⁾, 역용패설¹²⁾ 등이다.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대상 작품은 다음 表와 같다.

<작품 목록>

문헌명	애정적인 작품	가정적인 작품
삼국사기 상	호동왕자(258) ¹³⁾	유리왕(245)
삼국사기 하	만명(225-226), 온달(258), 설씨녀(321)	
삼국유사	강수(289), 도미처(323) 도화녀비형랑(43), 태종춘추공(47) 무왕(74), 김현감호(162)	
파한집		김유신(85)
역용패설		정통(326)

1) 반동인물의 存在樣相

대상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반동화의 계기와 반동행위의 결과 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온달>과 <무왕>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고자 하는 평강공주와 선화공주, 그리고 그녀의 반려자인 온달과 서동을 주동인물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의 애정과 결혼에 가장권을 행사하려는 평강왕과 진평왕 즉 부모를 반동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동인물의 목적은 자녀의 愛情問題를 주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반동화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권 즉 가장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동행위의 결과는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결혼한다는 점에서 반동인물은 실패했다고 하겠다.

나머지 작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9) 삼국사기, 김부식, 대양서적, 1973.
- 10) 삼국유사, 일연, 광조출판사, 1973.
- 11) 파한집, 이인로, 대양서적, 1973.
- 12) 역용패설, 이체현, 대양서적, 1973.
- 13) 작품의 제목이 없는 것은 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편의상 제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괄호 안의 숫자는 그 작품의 소재 쪽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원칙은 이 논문의 끝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원고지 매수 제한으로 생략한다. — 이런 방법은 조선 전·후기의 반동인물 존재양상 파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과의 기록 순서는 반동인물의 종류//반동인물의 목적//반동인물의 반동화 계기//반동행위의 결과 順으로 한다.

- <호동왕자> : 부모//자녀 결혼의 정략적 이용//가부장권 행사//실패.
- <설씨녀>, <강수>, <만명> : 부모//자녀의 애정(혼인)주도//가부장권 행사//실패.
- <도미처>와 <도화녀 비형량> : 최고 권력자(왕)//민간 부녀자의 정조 유린과 음욕달성//권력남용//실패.
- <태종 춘추공> : 최고 권력자//기득권 보호//기존 제도의 고수//실패.
- <김유신> : 부모//자녀의 올바른 교육//자식의 외도 경계//성공.
- <정통> : 正妻//애정독점//질투심//실패.
- <유리왕> : 처(화회)//애정독점//질투심//성공.
- <김현감호> : 오빠//개인적 욕망달성//가장권 행사//실패.

이상의 작품별 분석에서 나타난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을 요소별로 종합해 보면, 반동인물의 종류는 부모, 왕(최고 권력자), 처, 오빠의 4種으로 나누어지고, 반동인물의 목적은 자녀 결혼의 정략적 이용, 자녀의 혼인 주도권 장악, 음욕달성, 개인적 욕망 달성, 기득권 보호, 자녀의 올바른 교육, 애정독점 등의 7種으로 나누어지며, 반동화의 계기는 가장권행사, 권력남용, 기존제도의 固守, 結婚妨害, 外道警戒, 嫉妬心 등의 6種으로 나누어진다. 반동행위의 결과는 실패와 성공의 2種으로 나누어진다.

2)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을 작품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달>과 <무왕>의 반동인물인 부모(평강왕, 진평왕)는 딸(공주)을 궁중에서 축출하고 시련을 가함으로써 단지 특별한 결혼, 즉 바보나 마를 파는 서동 등 공주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과의 결혼을 이루게 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특별한 결혼에 원인 제공자 내지 그러한 인물을 택하게 된 딸의 높은 안목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배경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나머지 작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원고지 매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생략한다. --- 이런 방법은 조선 전·후기의 작품내적 기능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호동왕자>의 반동인물은 단지 사건 전개에 극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매개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만명>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애정성취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돋보이게 하는 매개물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외에 <정통>의 반동인물도 <만명>과는 내용상 서로 다르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지나친 외도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게 만드는 매개 역할 정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도미처>의 반동인물은 도미처의 절개를 의심함으로써 사건, 즉 갈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미처를 시험함으로써 갈등을 확대하며, 또 그 남편의 눈을 뽑고 죽이려 함으로써 갈등을 고조시키고, 도미의 처를 강제로 욕보이려 함으로써 갈등을 정점에 이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반동인물의 이러한 행위는 주동인물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함은 물론 비극성을 부각시켜 '도미처의 위대한 열녀성'이란 주제 형성에 인과성과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도미처>의 반동인물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주제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이외에 <설씨녀>도 <도미처>만큼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패턴 pattern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미처>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김유신>의 반동인물은 단지 사건 발생의 계기나 원인 제공자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춘추공>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이나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도화녀 비형량>의 반동인물은 단지 주동인물의 탄생에 기여함을 부여해주는 배경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설화 속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배경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온달>, <무왕>, <도화녀>, <유리양>)과 사건 전개의 극적 효과나 매개물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만명>, <정통>, <경사>, <호

동왕자>), 그리고 사건 발생의 계기나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김유신>, <김현감호>, <대동춘추공>), 또 사건 전개나 주제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물(<도미처>, <설씨녀>)의 네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명목상의 분류일 뿐, 위에서 분류된 매개나 배경, 계기 등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또 그 구분의 기준이恣意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기능의 임의적인 분류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화 속의 반동인물은 사건 전개나 주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미처>와 이에 준하는 <설씨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품 속에서 단지 사건 발생의 계기나 매개 역할 등 부수적인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 속의 반동인물은 사건 전개나 주제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류와 단지 작품 속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두 부류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동인물이 사건 전개나 주제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작품은, 많은 작품 중 <도미처>와 <설씨녀>의 두 작품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은 예외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설화 속의 반동인물이 작품 내에서 갖는 기능은 결국 사건의 발생이나 전개 또는 마무리에 계기나 매개 혹은 배경 정도를 제공해 주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전기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조선 전기의 문헌 중 본고의 대상이 될만한 설화를 담고 있는 문헌은 용재총화¹⁴⁾, 패관잡기¹⁵⁾, 대동운부군옥¹⁶⁾, 오산설립초고¹⁷⁾, 어우야담¹⁸⁾ 등이 있다.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對象 作品은 다음 表와 같다.

14) 용재총화, 성현, 『대동야승』 권 1, (민족문화 추진회, 민중서관 공무국), 1971.

15) 패관잡기, 어숙권, 『대동야승』 권 1, (민족문화 추진회, 1971.)

16) 대동운부군옥, 권문해,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17) 오산설립초고, 차천로, 『대동야승』 권2.(민족문화 추진회, 1971).

18) 어우야담, 유몽인, 『한국문헌실화』 6. (태학사, 1987).

<작품 목록>

책 명	애정적 작품	가정적 작품
용재총화	홍재상(91), 안생(123-125) 김사문(134)	경사(114)
패관잡기		순지의 딸(445), 하정의 첩(469)
대동운부군옥	수삼석남(권 8, 248)	
오산설림초고	왕손명(13)	
어우야담	심수경(308)	황수신(131), 국가승평시(243) 남녀지간대욕존언(254)

1) 반동인물의 存在樣相

대상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종류와 반동인물의 목적, 반동화의 계기, 그리고 반동행위의 결과를 추출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사문>: 부모//자녀의 장래 행복 달성//가장권 행사//실패.
 <안생>과 <왕손명>: 노비 소유자//노비들의 혼사 주관//노비 소유권 행사//실패.
 <홍재상>과 <심수경>: 연모자//일방적 결혼의 성취//일방적 애정의 요구//실패.
 <황수신>: 부모//자녀의 올바른 교육//자식의 외도 경계//성공.
 <순지의 딸>과 <男女之間大慾存焉>: 부모//자녀의 부정 방지//부정한 자녀의 징계//성공.
 <국가승평시>: 妻//남편의 애정 독점//질투심//실패.
 <경사>: 妻//음욕달성//이웃 집 남자와 사통 실행//실패.
 <하정의 첩>: 부모//자녀의 장래 행복 달성//改嫁 강요//성공.
 <수삼석남>: 부모//자녀의 혼인 주도//가장권 행사//실패.

위의 작품별 분석에서 나타난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을 요소별로 종합해 보면, 반동인물의 종류는 부모, 노비소유자, 연모자, 처 등의 4種으로 나뉘어지고, 반동인물의 목적은 자녀의 婚姻主導, 노비의 婚姻主導, 일방적 결혼성취, 자녀의 올바른 교육, 자녀의 부정 방지, 자녀의 장래 행복 달성, 애정독점, 음욕달성 등 8種으로 나뉘어지며, 반동화의 계기는 가장권행사, 소유권행사, 자녀의 외도 경계, 부정한 자녀의 징계, 改嫁의 강요, 질투심, 私通의 실행, 일방적 애정강요 등 8種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반동행위의 결과는 실패와

성공의 2종으로 나뉘어진다.

2)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을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사>의 반동인물은 단지 등장인물의 행위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극적 효과의 매개 역할만 담당한다.

<김사문>과 <수삼석남>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애정성취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돋보이게 하는 매개물 정도의 구실만 담당한다.

<안생>의 반동인물은 사건의 중간에 개입하여 여종에게 시련을 가함으로써 여종과 안생의 사랑, 그리고 여종의 정절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 주는 媒介 역할만 담당한다.

<홍재상>의 반동인물은 단지 뒤의 기이한 ‘뱀사건’을 합리화 해주는 원인이나 계기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왕손명>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배경 역할만을 담당한다.

<남너지간대육존언>의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악행이 얼마나 큰가를 돋보이게 해 주는 극적 효과의 매개 역할만 담당한다.

<순지의 딸>의 반동인물은 단지 주동인물의 가계를 알려주는 배경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국가승평시>의 반동인물은 우스꽝스러운 실수 사건 발생의 계기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하정의 첩>의 반동인물은 개가로 인한 비웃음 사건을 발생시킨 계기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반동인물의 기능을 종합해 보면, <경사>, <김사문>, <안생>, <남너지간대육존언> 등의 반동인물은 대체로 극적효과의 매개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고, <홍재상>, <국가승평시>, <하정의 첩> 등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계기 제공의 역할만 담당하며, <순지의 딸>, <왕손명> 등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이나 가계를 보여 주는 배경 정도의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時期 文獻說話의 반동인물도 前代의 文獻說話에 등장하는 반동인물과 마찬가지로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

로 작품 속에서 사건발생의 계기와 매개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사건 발생의 배경 등을 알려주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3. 조선후기 文獻說話의 반동인물

조선후기의 문헌 중 본고의 對象 說話를 싣고 있는 문헌으로는 계서야담¹⁹⁾, 청구야담²⁰⁾, 동야회집²¹⁾ 등이 있다.

이들 문헌에 등장하는 대상작품은 다음 표와 같다.

<작품 목록>

책 명	애정적인 작품	가정적인 작품
계서 야담	정효준(71-195), 이성인(74-213) 이동악(27-77), 매화(9-17) 심희수(72-201), 노신(84-256), 관백(88-275)	권진사(87-266), ²²⁾ 김상국(32-94) 조현명(80-287), 홍우원(73-209)
청구 야담	양승상복판봉기우(80-248) 반동도당고초중(한국 ; 97-536) ²³⁾ 득이침권상사복연(100-322) 결방연이팔낭자(127-396) 창의병현모조자(한국 ; 94-522)	설신원완산운점옥(한국 ; 102-563)
동야 회집	환의심량예숙약(상 ; 29-193) 타환술전예기연(상 ; 61-412) 휘도매수퇴륙혼(상 ; 28-186) 가절마전화매영(상54-358) 탈황망옥환천약(하 ; 147-255)	현부지납채교녀(하 ; 144-234) 함옥환봉처득운(하 ; 141-219) 런너모사죄접어(하 ; 152-279) 청성밀간선죽자(하 ; 107-35)

- 19) 계서야담, 이희준, 『한국문헌실화전집』 6권,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 연구소, 태학사, 1987.
- 20) 청구야담, 『한국문헌실화전집』 2권과 『한국야담자료집성』, 정명기 편, 고문헌 연구회, 1987.을 대본으로 삼음.
- 21) 동야회집, 이원명, 『한국문헌실화전집』 3-4권,
- 22) 팔호안은 문헌 속에서 이 설화가 차지하는 순서의 번호(번호는 필자가 각각의 설화집 속에 등장하는 설화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례대로 순서를 매긴 것임.)와 이 설화가 실려 있는 쪽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출전을 달리한 동일 내용의 설화가 많이 있으나 이들은 생략한다.
- 23) 청구야담은 한국문헌실화전집(국립중앙도서관본)을 중심으로 하되 이 책에서 빠진 것은 한국야담자료집성(정명기편, 원광대학교 고문헌연구회, 권2, 1987)에 실려 있는 규장각본으로 보충하고 <한국>으로 표시한다.

1) 반동인물의 存在樣相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종류와 반동행위의 목적, 반동화의 계기 그리고 반동행위의 결과를 추출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효준>, <이성인>, <양승상복판봉기우>, <관백>, <창의병현모조자>, <결방언이팔남자>: 부모//자녀의 혼인이나 축첩 주도//가부장권 행사//실패.

<반동도당고초중>, <환의심랑예숙약>: 血族//혈족의 혼처 가로채기//혈족의 결혼 방해//실패.

<타환술전예기연>: 오빠//경제적 富의 축적//누이의 결혼 방해//실패.

<취도매수퇴득혼>, <득이첩권상사부연>, <애화>: 상위 권력자//억혼 달성//권력남용//실패

<현부지남채교녀>, <권진사>, <련녀모사죄접어>: 正妻(본처)//애정독점//질투심//실패.

<합육환봉처득윤>, <김상국>: 첩실//가권독점//본처의 모함//실패.

<조현명>, <설신원완산윤접육>: 계모//가권독점//전처 소생 모함//실패.

<홍우원>, <청성밀간선죽자>: 처(淫婦)//음욕달성//사통//실패.

<탈화망육환천약>, <이동약>: 부모//자녀의 혼인 주도//가부장권 행사//실패.

이 외의 <획동보혜부택부>, <가절마전화매영>, <심희수>, <노신> 등의 작품에는 반동인물다운 반동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다만 주동인물의 미담적 애정행각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의 작품별 분석에서 나타난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을 요소별로 종합해 보면, 반동인물의 종류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 생질 등을 돌보는 혈족, 남의 애인을 가로채려는 상위 권력자, 누이의 결혼을 방해하는 오빠, 남편의 의도를 막으려는 본처, 본처를 투기하는 첩실, 전실 자식을 모해하는 계모, 淫婦(처) 등의 8종으로 나뉘어지고, 반동인물의 목적은 혼인주도, 혼처 가로채기, 경제적 부의 추구, 애정독점, 억혼달성, 가권독점, 음욕달성 등의 7종으로 나뉘어지며, 반동화의 계기는 가장권행사, 혈족이나 누이의 혼인 방해, 권력남용, 질투심, 본처 모함, 전처 소생 모함, 외간 남자와의 사통 등의 7종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반동행위의 결과는 모두 실패했다.

2)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을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여모사죄집어>의 반동인물은 기생의 대담성을 돋보이게 하는 사건 발생의 계기 정도를 제공한다.

<설신원완산윤검옥>이나 <김상국> <조현명> <청성밀간선죽자> 등의 반동인물은 冤抑이란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합옥환봉처득운>의 반동인물은 단지 이별의 상태를 합리화하는 배경 내지 원인 제공자로서만 기능한다.

<정효준>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원인 내지 사건 전개에의 매개 역할만 담당한다.

<현부지남채교녀>의 반동인물은 떠느리의 현숙함을 드러내주는 원인 제공자 내지 배경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탈화망옥환천약>과 <이동악>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양승상복관봉기우> <창의병현모조자> <이성인> 등의 반동인물은 단지 사건 발생의 원인 제공자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휘도매수퇴륙훈>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계기 내지 매개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득이첩권상사복연>의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계기나 원인 제공자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나머지 작품들도 이들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에 따라 반동인물의 역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동인물은 단지 설화 속에 삽입된 흥미 있는 삽화나, 삽화의 배경 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설화 자체의 사건 발생에 계기나 매개 정도의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설화에 등장하는 반동인물도 前代의 작품에 등장하는 반동인물과 마찬가지로 작품 내에서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미미한 존재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별 반동인물의 특징을 유사한 성격끼리 묶어서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반동인물의 시대별 특징 조건표>

시대	분야	반동인물	목적	계기	결말	기능
고려 시대 이전	애정	부모, 오빠 왕(권력가)	자녀혼인 정략적 이용 자녀혼인의 주도 음욕달성, 기득권 보호 개인의 욕망 달성	가장권 행사 권력남용 기존제도 고수 혼인방해	실패	사건 발생의 계기와 매개 역할 등을 담당하거나, 사건의 배경 등을 보여 주는 부수적 역할만 담당 한다.
	가정	부모, 妻	자녀의 올바른 교육 애정독점	외도 경계 질투심	성공 실패	
조선 전기	애정	부모 노비소유자 연모자	자녀의 혼인 주도 노비의 혼인 주도 일방적 결혼 성취	가장권 행사 소유권 행사 애정의 강요	실패	
	가정	부모 처	자녀의 올바른 교육 자녀의 부정 방지 애정독점, 음욕달성 자녀의 장래 행복	子女外遣 방지 자녀의 징계 질투심, 사통 개가의 강요	실패 성공	
조선 후기	애정	부모, 혈족 상위 권력자 오빠	婚姻主導, 抑婚達成 혈족의 혼처 가로채기 경제적 富의 추구 억혼 달성	가장권 행사 혼인 방해 권력남용	실패	
	가정	본처 첩실 계모	애정독점 음욕달성 가권독점	질투심, 사통 전처소생 포함 본처 포함	실패	

Ⅲ. 반동인물의 史的 變異와 그 意味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 변이양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시대별 동이점이 갖는 의미를 究明해 보기로 한다.

1. 婚姻條件의 個別性과 愛情的 說話.

애정적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시대별 특징은 <반동인물의 시대별 특징 조건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동인물의 종류가 부모이고 목적이 자녀의 혼인 주도이며, 또 계기가 가장권 행사이고 결과가 실

패로 끝나는 하나의 유형과 반동행위의 결과가 모두 실패로 끝난다는 하나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시대별로 반동인물의 모든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고려시대와 조선후기는 반동인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선전기와는 서로 유사한 점이 거의 없는 등 시대마다 유사한 유형은 있으나 반동인물이 부모인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가 시대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동인물의 이러한 성격은 설화가 민중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민중들이 몸담고 있던 시대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대별 공통점이 갖는 의미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애정이나 결혼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은 사회제도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남녀간의 결혼관이나 부자간의 혈연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시대를 넘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갈등의 형태도 공통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애정설화의 반동인물 存在樣相이 시대를 넘어 공통성을 지닌다는 것은 애정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결혼관이나 부자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동행위의 결과가 모두 실패로 끝난다는 것도 반동인물의 행위가 주동인물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勸善懲惡의 세계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남녀 愛情問題에 있어서의 반동인물(부모)의 패배는 남녀의 애정문제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애정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는 언제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남녀 애정관 즉, 애정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남녀 애정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애정설화에 나타난 시대를 초월한 반동인물의 공통점은, 남녀 애정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결혼관이나 부자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勸善懲惡의 사고방식과 애정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남녀 애정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반동인물의 시대별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당시 남녀간 애정의 틀

을 제공했던 혼인조건이나 사회적 여건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는 自由婚이 당시 일반에게 널리 행해지던 혼인조건이었고, 신라의 왕실도 가야계 귀족과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혼적 방법을 취했으며,²⁴⁾ 고려시대도 신라의 이러한 혼인조건을 계승하게 된다.²⁵⁾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고려말 元에 복속되면서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未婚 풍속이 國初의 未婚禁止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전체를 통하여 상층사회로부터 일반에게 차차 보급되어 후기에는 널리 유행하게 된다.²⁶⁾ 이에 따라 고려시대까지는 主婚者와 애정 당사자간의 갈등도 물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보다는 애정 당사자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전기도 혼인조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민중 생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경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前時代에 있을 법한 애정 당사자간의 갈등이나, 유교적 신분제도의 정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奴主間의 愛情葛藤 등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조선전기에 시작된 혼인조건이 정착되면서 前時代와는 달리 애정 당사자간의 갈등보다는 혼사 주관자간의 갈등이나 愛情外的 문제 즉, 조선후기의 민중의식의 성장에 따라 대두된 경제적 富에 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한 갈등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하겠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애정설화에 나타난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차이점은 위에서 살펴 본 시대별 혼인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결국 이러한 혼인조건과 사회제도 그리고 민중 의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권력남용을 통한 음욕달성이나, 개인적 욕구충족 등을 위해 딸이나 누이의 혼인을 방해하는 왕이나 오빠 등의 반동인물 유형이 나타나는데 비해 조선전기는 일방적으로 婚姻을 成就하려는 연모자나 노비의 혼인을 주관하려는 奴婢所有者 유형의 반동인물이 나타나며, 조선후기는

24)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90, 225쪽.

25) 이광규, 앞책, 227쪽.

26) 이광규, 앞책, 229쪽.

흔처 가로채기, 經濟的 富의 추구, 抑婚 達成 등을 도모하는 유형 등의 반동 인물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도 설화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중의식을 반영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시대별로 특징적 문제점이나 문제적 인물 등을 보여준은 물론, 민중의 시대별 關心事의 변동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애정적 설화에 나타난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차이점은 남녀간 愛情葛藤 양상의 시대별 변모와 남녀간 애정에 대한 특징적 시대상 및 민중의 시대별 關心事의 變動推移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이 갖는 특징을 파악해 보면, 앞의 <반동인물의 시대별 특징 조건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동인물은 설화의 종류와 시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건 발생의 계기와 사건 전개 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사건의 배경 등을 보여 주는 등 주동인물 에 비해 항상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와 유형을 불문하고 부수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반동인물 의 작품내적 기능이 갖는 의미는, 다만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기능 적 특징을 보여 주는 정도의 의미만 갖는다고 하겠다.

2. 家族制度의 特殊性과 家庭的 說話

가정적 설화에 등장하는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시대별 특징은 <반동인물 의 시대별 특징 조건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동인물의 종류가 妻이고 목적이 애정독점이며, 또 계기가 질투심이고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하나의 유형만을 제외하고는 반동인물의 모든 유형이 시대별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중 공통점이 갖는 의미부터 설화 생성의 바탕이 된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古代부터 조선시대까지 一夫多妻制가 행하여졌기에²⁷⁾ 한 家庭內에서는 한 남편을 중심으로 여러 아내가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爭寵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妻의 입장에서는 “시앗을 보면 길가

27) 이광규, 앞책, 232-235쪽 참조.

의 돌부처도 돌아 앉는다”²⁸⁾는 속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이 시앗을 보지 못하도록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조선시대까지의 가족제도와 부부형태 아래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부간이나 처첩간의 문제에는 공통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가 모두 실패로 끝난다²⁹⁾는 것도

“신라의 下代 이후 대두하기 시작한 남아 존중의 사상은 왕권의 강화로 인한 血族男系親에 의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며 한편 조상숭배의 발달로 祖靈은 血族男系親 卑屬에 의하여 봉사되어야만 하겠다 는 생각에서 더욱 발달되었다.”³⁰⁾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는 後繼를 위한 男兒의 출생이나 육체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릴 수 있으나 여자는 투기해서는 안된다는, 신라 下代 이후 조선시대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한 男尊女卑 사상의 반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 악의적인 행위의 일방적 패배는 우리 민족의 권선징악적 세계관의 일단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적 설화의 공통된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은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가족제도나 부부형태의 공통된 특징과 그러한 특징에서 胚胎된 男尊女卑 사상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시대별 차이점의 특징이 갖는 의미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별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추출해 보면, 앞의 <반동인물의 시대별 특징 조건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려시대는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자녀의 의도를 경계함으로써 반동화되고, 또 그 결과 자녀들이 반성함으로써 성공한다는 부자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비해 조선전기는父子間의 갈등에 있어서도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不貞한 행위 단속과 자녀의 장래 행복을 위한 改嫁 장요 등이 덧붙었으

28) 이회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4, 1787쪽 ‘시앗’ 참조.)

29) 결과가 실제로는 성공과 실패로 양분되지만 반동인물의 의도가 善意的일 때만 성공으로 나타나고 惡意的일 때는 실패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동일한 결과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0) 이광규, 앞책, 292쪽.

며, 이외에 妻(淫婦)가 음욕달성을 위해 私通하려다가 실패하는 유형도 첨가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淫婦의 私通 유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前時代에는 없던 첩실이나 계모가 등장하여 本妻나 前室 所生을 없애버리고 家權을 독점하려다가 실패하는 유형이 중심을 이룬다. 이처럼 가정적 설화의 반동인물은 애정적 설화와는 달리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이 시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 前·後期の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설화가 시대적 사회적 산물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도 조선시대까지의 사회제도나 부부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一夫多妻制가 행해졌으나 고려시대까지는 처첩과 적서의 차별이 거의 없었기에³¹⁾ 처첩간의 愛情葛藤은 있을 수 있으나 후손의 사회·경제적 입지를 위한 家權 쟁탈이나 경제권의 장악을 위한 처첩간의 갈등은 거의 불필요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고려시대까지는 근친혼이 유행을 했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異腹兄弟間的 혼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³²⁾ 계모와 전실 자식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고려시대까지의 설화에는 조선후기와는 다른, 부자간의 갈등을 다룬 반동인물의 유형만 등장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조선전기는 태종 방원의 즉위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嫡庶의 분이 급기야는 처첩간의 신분적 차별은 물론 그들의 所生에게도 차별을 가져왔으며 또 이러한 사조가 사회일반에 전파되면서 庶出子孫을 천시하고 仕路를 막는 庶孽禁錮法³³⁾을 만들고³⁴⁾ 재산의 상속과 가계의 承繼에까지 차별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서차별은 대체로 사회 상층에서 크게 문제된 반면 일반 민중의 실생활에는 이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³⁵⁾ 그러므로 이 시기도 적서차별로 인한 처첩간이나 계모와 전실 자식간의 갈

31) 이광규, 앞책, 292쪽.

32) 이광규, 앞책, 61-72쪽 참조.

33) 서얼금고법이란 '經國大典, 3권, 禮典 諸科條'에 기재된 庶孽子孫은 文武科生 眞進士試에 扞함을 불허한다는 법을 말한다.

34) 이광규, 앞책, 295-298쪽 참조.

35) 이광규, 앞책, 295쪽 참조.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보편화되어 설화로 생성되고 이 설화가 人口에 膾炙하다가 文獻說話로 정착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가 아니었던가 한다.

반면에 이 시기는 고려 말엽의 성리학 수입과 더불어 부흥하게 된 유교 윤리가 조선에 들어와 정착되면서³⁶⁾ 남녀간의 윤리와 부부간의 의리가 중시된 것은 물론 男尊女卑 사상의 확대에 따른 여성의 烈이 특히 강조되기에 이른다. 이과정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자유분방하던 남녀관계와 부부의 관념이 유교 윤리와 충돌하게 되면서 과부의 改嫁나 부녀자의 사통 등이 사회적 關心事가 되어 說話化됨으로써 다른 시대와는 구분되는 반동인물의 存在樣相을 낳게 되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는 임·병 兩亂 이후 민중의식의 성장과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특히 경제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었고³⁷⁾ 또 조선전기 후반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적서차별이 정착됨에 따라 가정내적 문제에 있어서는 처첩간의 갈등이 중심문제로 부각되게 되었으며, 또 처첩간의 갈등도 前代와는 달리 愛情葛藤보다는 경제권의 장악과 신분의 변동은 물론 所生에게까지 代물됨 할 수 있는 가권의 독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적서차별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 前妻의 所生이 있는 가정에 再嫁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자녀를 두게 되었다면 계모도 첩실은 아니지만 첩실과 다름없는 시선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본인도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는 처첩간의 갈등은 물론 前妻 所生과 繼母의 갈등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이 시기는 유교적 가정윤리가 거의 신앙화되고 가장권이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면서 忠·孝·烈이 무엇보다 강조되던 시기였기에 前時代와 같은 부자간의 갈등을 다룬 유형은 나타날 수 없었으며, 淫婦의 私通을 다룬 유형도 다만 이를 부정하고 경계하는 측면만 부각시켰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가정적 설화에 나타난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시대별 차이는 시대별 가족제도 내지 부부형태의 차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반동인물 存在樣相의 史的 變異는 시대별 가족제도나 부부형

36) 『한국윤리사상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20-124쪽 참조.

37)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90, 313-330쪽 참조.

태 등의 변화는 물론 社會意識 등의 變動推移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동인물의 작품내적 기능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는 시대별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애정적 설화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IV. 마무리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애정적 설화의 반동인물 존재양상이 갖는 시대별 특징은, 반동인물의 종류가 부모인 한 유형과 반동행위의 결과가 모두 실패로 끝난다는 하나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와 조선후기의 반동인물 유형이 약간의 유사점을 지닐 뿐 시대별로 반동인물의 모든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2. 가정적 설화의 반동인물 존재양상이 갖는 시대별 특징도 반동인물의 종류가 妻이고 목적이 애정독점이며, 또 계기가 질투심이고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하나의 유형만을 제외하고는 반동인물의 모든 유형이 시대별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3. 반동인물의 作品內的 기능이 갖는 시대별 특징은, 시대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반동인물은 사건 발생의 계기와 사건 전개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사건의 배경을 보여 주는 등 주동인물에 비해 항상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4. 애정적 설화에 나타난 반동인물의 시대별 변이양상은 남녀 애정문제에 관한 우리 민족의 보편적 결혼관과 부자관계 그리고 勸善懲惡의 세계관 및 애정 당사자를 중시하는 남녀 애정관의 一端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남녀간 愛情葛藤의 시대별 樣相 變貌와 남녀간 愛情問題에 대한 특징적 시대상 및 민중의 시대별 關心事의 變動推移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5. 가정적 설화에 나타난 반동인물의 시대별 변이양상은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가족제도나 부부형태 등의 史的 변천 과정과 거기서 파생된 諸問題의 특징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이러한 가족제도에 배태되어 있던 男尊女卑 사상이나 권선징악적 세계관 등 사회적 關

心事나 社會意識의 變動推移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6. 반동인물이 갖는 작품내적 기능의 史的 變異樣相이 갖는 의미는, 반동인물이 시대와 유형을 불문하고 부수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만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반동인물의 기능적 특징을 보여 주는 정도라 하겠다.

설화의 다른 장르종이나 기타 다른 측면의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많은 질정을 기대한다.